

요 약 문

I . 제 목

부산지역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방안

II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1980년대 이후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공업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환경관리 상의 문제점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미치고 있는 환경문제점이나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그 동안 도심의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인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환경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부산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사상구전용공업지역,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에서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지도·점검 등의 제반 행정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방행정분권의 강화를 위해 2002년 10월 1일부터 부산시로 이관되어 다시 2007년 8월 11일자로 각 자치구·군으로 공단지역의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산의 환경오염물질의 유발하는 사업장이 자치구·군으로 이관되면서 관리대상업체는 증가하였으나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행정 및 지도·점검 등의 환경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산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규모별로 영세한 5종 사업장의 비율이 대기의 경우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의 경우 8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환경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운전하고 있고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지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사상구전용공업지역 및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첫째, 사업장의 특성과 환경관리 현황, 환경위반 정도, 환경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부분을 기

초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배출업소에서 느끼고 있는 환경관리의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부산지역의 환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관리 및 지원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부산지역의 산업단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에 협조를 받아서 환경배출업소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조사대상 공단지역의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지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방문조사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준 공단지역의 환경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장 방문조사원은 사전 정보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5개조(2인 1조)로 편성하여 1차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였으며, 2차 조사기간은 9월17일부터 11월 09일까지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협조한 자료에서 사상구전용공업지역은 337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녹산국가산업단지는 32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협조로 부산패션칼라협동사업조합 회원사 46개사, 장림도금사업협동조합 회원사 61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로 조사대상은 부산의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사상구전용공업지역,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의 산업단지에 관한 행정관리는 국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었으나, 2002년 이후 지방이양 업무로 부산시에서 공단지역의 환경

관리 및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부산시에서 공단지역의 환경배출업소 관리업무를 해당 자치구·군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환경배출업소의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한 상황임으로 본 연구에서 공단별 환경관리 실태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공단지역의 자치구·군의 효율적인 환경행정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의 애로 사항 및 환경규제 준수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에 있어 가장 필요한 환경지원 사항을 분류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셋째,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사상구 전용공업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부산지역의 산업단지별로 환경관리를 하는 데 있어 열악한 경영환경과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상구 전용공업지역에 입주한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가칭 “환경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단지별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환경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사상구 전용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환경인력의 부족과 운영자금의 부족한 것을 가만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환경관리를 자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의 필요성과 환경공학을 전공한 인력에 대한 사전 환경진단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사회경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